29. 주유소 주유원에서 발생한 천식

성별 남 나이 38세 직종 주유원 업무관련성 높음

- **1. 개요:** 근로자 박○○는 2004년 10월부터 주요소 주유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년 7월 천식으로 진단받았다
- 2. 작업환경: 업체는 총 4명의 주유원을 고용하여 ○○터미널 안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총 4명의 근로자가 2인 1조로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오전 1-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음) 격일제로 근무한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거래처 차량의 주유가 많고, 이후오후 9시까지는 주유와 세차를 병행하다가, 오후 9시 이후에는 거래처 버스들의 주유를하는 등 근로자 1인당 하루 약 70-100대 차량에 주유하며 근로자 2명이 하루 총 30-40대 차량을 자동 세차한다. 근로자 박○○은 35세 때인 2004년 10월 18일부터 주유원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차량에 무연 휘발유 및 저유황 경유를 주유하고, 자동세차기를 조작하는 작업을 하였다. 2004년 10월 18일 주유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에서 IPA(아이소프로필 알코올)는 검출되지 않았고, Pentane은 0.0054 및 0.5579 ppm이었다.
- 3. 의학적 소견: 근로자 박○○은 2004년 12월경 기침과 콧물이 시작되어 약을 복용하면서 근무하다가, 특히 밤에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이 10일간 계속되어 2005년 3월 29일부터 5월 26일까지 개인의원에서 천식으로 치료받았다. 2005년 7월 6일 기침과 콧물이많이 났으며 자정까지 근무한 후 주유소 2층 숙소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다가 다음날출근한 동료 근로자와 구급차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당일 갑자기 기침과 호흡곤란이 심해졌고, 흡기 및 호기시 천명음이 청진되었다. 말초혈액검사에서 호산구증가증이 있었고 IgE도 증가된 소견을 보였다. 동맥혈가스분석상 저산소증 소견을 보였다. 입원한다음 날인 7월 8일 기관지확장제 및 스테로이드 투약 중인 상태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폐색성 환기장애가 나타났고 기관지과민성 검사는 음성이었다. 특진 실시 결과 주유작업을 전후로 하여 실시한 폐기능검사 상 폐쇄성 폐기능 저하 소견, 기관지과민성의 악화와 호전을 보였다.

4. 결론: 근로자 박〇〇은

- ① 기관지천식으로 요양 신청하였는데 특진 결과 실제 주유작업에 대한 천식유발시험에 서 기관지과민성과 가역성 소견을 보여 천식으로 진단되었고,
- ② 입사후 2달 뒤부터 기침, 비염증상이 있었고 5개월 후부터 천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 ③ 9개월간의 주유작업 중 노출된 배기가스(중금속 첨가물,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에 의하여 천식이 확인되었으므로.

근로자 박○○의 천식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직업성 천식으로 판단된다.